

공동체 소식



연중 제5주일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지난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7세대가(\$920) 동참해 주셨습니다. 본당에서 한동안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참여하지 않아 목표금액이 낮았습니다. 이번 참여로 본당 목표액(\$333)을 273% 초과 달성하여 교구내 1위를 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이번 참여로 캔사스대교구에서 한인성당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구에서 하는 많은 활동과 나눔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협회 안내: 2월 17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캔사스대교구 주관)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 안내

주일학생들이 교육부에 등록을 시작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준비되면 등록부 배포하겠습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구역조정합니다. 4개 구역으로 구역조정합니다. (게시판 참조)

모임을 하기 편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월 구역모임을 해주시고 구역별 구역장 선출 및 구역 개신 사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 구역모임

감영진 라파엘 가정, 2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9315 W.150th St, Overland Park, 913.544.6392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54	511	156	401
차 주	46	210	166	49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최은미(아네스)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애찬 봉사자

금 주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차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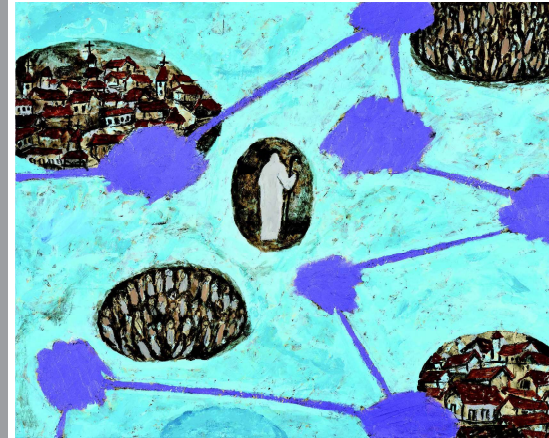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깨닫지 못한 우리 입술과 강하지 못한 우리 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끄시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림 묵상

온 갈릴래아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온 고을에서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병자들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는 가운데 온 갈릴래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 7.3-8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생명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겐네사렛 호수에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호숫가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서로 잘 듣기 위해 가까이하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 물에서 조금 나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시몬은 이미 장모님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던 터이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매력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차, 시몬은 이 예언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 도움을 청하니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 있는 말씀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로잡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가 물에서 조금 떨어져 나아가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당시 그물의 길이는 400~500m로 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그물을 치려면 가장 깊은 데에 쳐야 했고, 운영하려면 적어도 4명의 어부는 달려 들어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고기잡이 경험이 많은 어부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그물을 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고기잡이에 적합한 밤을 꼬박 새우며 허탕을 쳤는데, 낮에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지친 몸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서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대답합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루카 5,5) 스승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먼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현존과 사랑의 표지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지탱시켜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도, 아브라함 선조도 그러하셨듯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믿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 작업의 결말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분명히 느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크게 자각하게 됩니다. 이런 현존 체험은 그를 베드로로 자리 잡게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도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림을 받습니다.

2월 1일 새 신부님들, 2월 2일 봉헌생활을 (다시)시작하신 수도자님들, 이제껏 그래 오셨듯이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내어 맡김에 항구하시어 기쁨이 가득한 사목 생활, 수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마음에 좋은 말은 귀에 쓰다.
칭찬과 존경 속에 계시지 않고
고요와 반성 속에 계시는 그분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마르 1,45)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어머니 때문에 '바보 김수환'

저희 어머니는 올해 여든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선 연애하실 때 어머니가 콩처럼 자그마하고 귀여우시라며 콩각시라고 부르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항상 제 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화수분처럼 주셨습니다. 어릴 때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을 전 본능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여러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게 너무 슬픉니다. 자꾸 나이 들어가시는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괜스레 눈물이 납니다. 집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보고 갱년기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겸손하고 수줍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도 야기십니다. 저에게도 늘 이리시는 말씀이 "겸손해라, 말을 아껴라"입니다. 제가 녹화하러 나설때도 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을 아끼다 몇 마디 못하고 녹화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점잖고 선해 보이는 그런 아들이 좋답니다. 어머니가 좋으시면 저도 좋습니다.

요즘 어머니 아침 8시 30분과 오후 5시 50분이면 사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어김없이 라디오 앞에 앉으십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에서 아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섭외

받았을 때는 무척 망설였습니다. 보통 라디오 드라마는 성우들이 하던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사제가 되기를 바라셨던 어머니... 저를 떠밀어 광주 교구청에 신부님 면담까지 보게 했던 우리 어머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 목소리를, 그것도 소원이셨던 신부 역할로 듣게 되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바보 김수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어머니의 목주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롤로병원으로 봉사 가시는 버스 안에서 20년 이상 바치셨던 목주기도가 어머니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나 봅니다.

생전에 딱 한 번 뵈었던 김수환 추기경님, 저는 녹음 할 때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추기경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전 당신이 걸으셨던 길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바보 김수환'을 순천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함께 들어야겠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cpbc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은 'cpbc뽕'이나 유튜브에 '바보 김수환'을 치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재원 요셉 | 배우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 쇠렌 키르케고르